

### 내달 만기 외국인 채권 67억달러 원·달러 환율 1,100원 급등 전망

◇시라지 않는 금융위기설 = 금융위기설의 핵심은 오는 9월에 만기를 맞는 외국인보유 채권이 많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시에 한국에서 빠져나갈 경우 환율과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기관과 일반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국은행은 최근 밝혔다.

9월에 만기를 맞는 외국인 보유 채권은 67억1천만달러로 지난 5월 조사 당시의 84억달러에 비해 줄었다 때문이다. 게다가 9월 중 만기가 되는 채권의 대부분은 재무자별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외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들이 일시에 채권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율불안 심각해질 가능성 =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향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끌어올리고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키오과 같은 파생상품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1,006.00원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달새 80원

한국 경제가 9월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채권투자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퍼져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은 1,100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은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상승탄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경제는 일제히 흔들리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자금 일시 빠져 나갈때 금융·기업 부도 위기 직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수출기업 영업이익 감소 불보듯

이상 급등했다. 9월에도 환율하락 요인보다는 상승요인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불안 불안' = 코스피지수가 1,400대로 주저 앉은 주식시장은 9월에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전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발 신용위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원 푸르멘셜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가산금리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폭이 커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경기저점이 다가오고 있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계 경기둔화도 '직격탄' = 국내 경기도 고유가 및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둔화와 맞물려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분기 때 예상을 웃도는 3.3%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세금 환급효과가 사라지면 4분기에는 성장세가 다시 수그러들며 0%대로 떨어질 거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도 올림픽 이후 투자와 소비가 가라앉고 물가가 치솟는 '이상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경제 역시 휘청거리는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둔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경제 '9월 위기설'과 관련,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물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고꾸라지지는 않는다"면서 "현 시점에서 위기설을 부풀리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봐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것을 비교하면 1천억달러 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친기업 정책 표방 現정부서도 제조업체 투자 기피 현상 여전

567개사 유보율 690% ...개선 안돼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기업 정책을 줄기차게 표방하고 있으나 제조업체들의 투자기피 현상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 가운데 작년과 실적비교가 가능한 567개사의 지난 6월말 현재 유보율이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포인트 늘어났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해 벌어들인 기업 잉여금이 자본금의 몇배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음은 나타내기도 한다.

조사대상 업체의 잉여금은 6월 말 현재 392조2천4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늘어났는데 비해 자본금은 56조8천279억 원으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 기업에 비해 많은 돈을 벌면서도 투자는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들의 투자기피 현상은 이명박정부에서도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유보율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이 1,576.88%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1,567.25%), SK(1,258.71%), 롯데(1,257.27%), 한진(747.01%) 순이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646.28%)와 GS(570.12%), LG(438.99%), 한화(253.13%), 금호아시아나(242.45%) 등의 유보율은 전체 기업 평균치를 밑돌았다. /연합뉴스

### 대출금리 인상 전방위 확산

은행권 내부 기준금리 오늘부터 올려

신용·중소대출 인상 ...가계 부담 가중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10%에 육박한 가운데 은행들이 이달부터 내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출이 늘어나는 주식을 앞두고 대출금리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가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에 시달리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부 기준금리 속속 인상 = 지난달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본점과 지점간 거래할 때 적용하는 내부 기준금리(MOR)를 연 0.3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내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내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영업점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부 기준금리를 연 6%로 가장할 경우 지점이 6.3%의 금리로 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종전에는 0.30%포인트의 수익을 확보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금리를 높여야 된다. 기업은행도 장단기 금리 차 확대를 감

안해 변동금리형 대출에 적용되는 내부 기준금리를 작년 12월 이후 9개월 여 만에 연 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성에증서(CD) 금리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기업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71~8.31%로 지난 주 초보다 최고 0.21%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내부 기준금리를 매달 변경하는 외환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최고 0.30%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우량업체 임직원의 신용대출인 리더스톤의 금리는 1월 7.37~8.07%로 지난 달 초에 비해 0.26%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서민가계·중소기업 비명 = 은행들이 순이자마진(NIM) 등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인상이 주택대출금리에서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강화했으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선에서 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 이동복 패션쇼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31일 백화점 1층 정문 광장에서 올해 가을 이동복 패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2008 이동복 패션쇼'를 펼쳐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신입사원 특강

## “2010년 600만대 이상 생산·판매체제 구축 세계 시장 점유율 9% ... 5대 자동차 회사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 아직은 약한 브랜드 이미지 등 분발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010년 세계 5대 자동차업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석을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원들이 참가했다.

정 회장은 지난 29일 제주 해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2008년 현대·기아차 대졸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에 참가해 CEO(최고경영자) 특강을 갖고 현대·기아차의 비전과 인재관을

제시했다. 이번 대졸 신입사원 하계수련회에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입사자 등 500여 명의 대졸 공채 직

자하고 부품, 철강 등 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산업"이라고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미국·유럽 등 자동차 선진시장에서는 물론 인도·중국·러시아에 이어 올해 안에 브라질에 공장부지를 선정해 기공식을 가질 것"이라며 "현대·기아차는 2010년까지 총 600만대 이상의 생산·판매체제를 구축, 세계시장 점유율 9%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용 면적 85㎡ 공동 주택 기본 건축비 488만원 인상

전용 면적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488만원 가량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금보다 3.16% 상향조정해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3월과 9월에 정기 조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3월에는 2.16% 올랐었고 단풍슬라이딩계 도입에 따라 7월 8일 수시조정때는 4.40% 인상했다. 이

번 인상은 7월 8일 수시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노무비(3.52%)와 재료비(2.70%) 상승이 건축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용 85㎡, 공급 112㎡인 공동주택의 건축비는 1억5천490만원에서 1억5천980만원으로 약 488만원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향조정이 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2~1.5%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 로도복권 (제300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수	당첨자 수
7 9 10 12 26 38	39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836,092,425	1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9,181,908	34
3 5개 숫자 일치	1,180,922	1,416
4 4개 숫자 일치	47,646	70,193
5 3개 숫자 일치	5,000	1,102,135

### 팝콘복권 (제12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380610
2	1억	3조 908276
		4조 79985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74678
5	50만	각조 4044
		각조 61
6	2천	각조 92
		각조 14
		각조 5
7	1천	각조 1
		각조 8

### 기업 현금흐름 환란이후 최저

매출액 대비 4.5%...美·日보다 크게 낮아

국내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이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국내 기업 현금흐름 불안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601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현금흐름은 매출액 대비 4.5%로 1997년 3.7%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1.1%를 기록 작년 상반기의 4.0%보다 더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일본 닛케이225 지수에 포함된 191개사(7.5%), 미국 S&P500 지수에 편입된 339개사(14.5%)의 비율보다 크게 낮은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즉 영업활동으로 현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해 29.6%에 달해 1997년 30.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기 기준으로는 작년 상반기 35.2%에서 올해 상반기 46.1%로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내수기업, 중소기업, 건설업종의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1.8%로 대기업 1.9%에 비해 부진했고 건설업은 -11.3%로 가장 심각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 39개사 가운데 74.4%(29개사)가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다.

한편 한국의 금융불안이 올해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대출기관 연체율,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금융안정성을 지수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도는 올해 1분기 44.9로 지난해 69.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내 기업 CEO 80% 이상 “MB정부 실망스럽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80% 이상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세계경영연구원은 지난달 31일 CEO 118명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84%가 지난 6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매우 기대 이하'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반면 '기대 수준'이거나 '기대 이상'이라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30%가 '시장주의와 반(反)시장주의가 혼재된 정책'을 꼽았다. '적체'라는 단어를 배제하지 못한 인사정책(21%)과 정치력 부족(19%)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42%)·보수(37%)로 평가됐다.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8%는 실용주의가 국가를 이끌 철학과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지만 44%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고 이념구도를 벗어나는 중도노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국제컴퓨터아카데미	웹디자인 강사/포토샵, 일러스트, 드림위버, 플래쉬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9/01	062-223-6123
미래에셋생명-본사	전국[핀드&변역사]전문상담 보장 150만, 평균450만원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9/02	02-3425-0477
박준상헤어볼	[총장] 관리직[매니저]/헤어디자이너/보조스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2	062-226-7643
지에스커뮤니티	하나포스 대리점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3	062-433-2333
듀스킨	[인터넷쇼핑몰] 사무/운영관리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3	062-512-9539
기린정밀공업	생산직/품질검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3	062-944-6756
백제소프트	[정규직] 코벨가능한 편집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04	011-605-5363
동양생명	동양생명 (대전/북한)광주센터 SM 및 설계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10-7566-7700
히나아이엔씨	경리 회계관련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2-223-5633
AIG손해보험	[주5일]AIG 순천서비스센터 5기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1-906-7632
합소이환의원(광주/전남)	코디네이터/직원관리 실장급 여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05	062-351-107
소녀감성	여성유품 쇼핑매 스타일리스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6	011-602-1498
신화피스칼	기술팀(기계설계)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8	062-961-058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